

한신대 敎授團 견해문

우리 한신대학 교수들은 뒤늦게나마 스승인 도리로써 박종철군의 영전에 머리 숙여 정중히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억누를 길 없는 통분함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가족들에게는 한 사회를 이끌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 깊이 사죄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번의 박종철군 고문 살인 사건과 같은 야만적 폭력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를 느낀다.

인간의 인간됨과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천부의 것이며, 그것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확보

된다. 인간이 비인간화된 제도나 권력의 위세를 빌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할 때 인간의 인간됨과 존엄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물먹이고, 두들기고, 도살할 때 더우기 그러한 행위를 권력과 제도가 비호하고 은폐할 때 인간은 인간됨기를 그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끊어진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경제적인 유분함의 약속도, 어떤 경제제도도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해에 부친서의 권양 성고문 사건을 통해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마지막 피어린 절규를 들었었다. '너네도 팔이 있고 너네도 사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문의 재물로 사라져간 박종철군의 혼령을 우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위로해야 한다.

고문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라진다.

엠네스티 보고서가 세계 여러 곳의 경우를 들어서 군사정권의 종식과 고문의 종식이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한 바 있다.

비민주적으로 출발한 권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힘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폭력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람이냐'고 외친 목소리, 이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기 때문이라고 외친 권양의 목소리는 이미 우리 민족의 공지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마지막 조종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러나도 다시금 이땅의 민주화들의 치던 꽃다운 한 생명이 야만적 폭력에 끊어졌고 그 부모는 뚝뚝한 것이 죄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어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이 땅의 민주화들이 야기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은위할 수가 있겠는가? 박종철군의 죽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조종으로서, 우리 모두의 인간됨과 자존심

고문의 종식은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려는 운동이며, 정당성이 있는 권력을 창출하려는 운동이다. 우리 한신대학 교수 일동은 진심으로 이번 박종철군 사건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은 인간의 인간됨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 정권을 창출하려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권력자는 권력의 출발점과 속성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역사적 전환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987년 2월 3일

한신대학 교수단

산 을

코리아나 호텔

서울 특급호텔의 서비스
를 이세 올산에서도
실 수 있습니다.

- 부페식당
- 일식당
- 중식당
- 커피숍
- 바
- 사우나
- 나이트클럽
- 이음실, 터키탕

예약 : (0422) 44-9911



코리아나 호텔